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5. 4. 2.(수) 11:00 < 4.3.(목) 조간 > 배포 2025. 4. 2.(수)

인도태평양 지역 공급망 협력 강화 위해 민관 서로 머리 맞대

- IPEF 공급망 위기대응네트워크 협력 강화 위해 전문가 워킹그룹회의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위기대응네트워크(Crisis Response Network, CRN)' 의장국으로서 대외 불확실성 고조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위기 상시화에 대비하고자 역내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산학연의 전문가들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고자 4.2(수) 「공급망 전문가 워킹그룹」을 발족*하고, 14개 IPEF 회원국간 협력 강화 방안을 중점 논의하였다.

* 공급망 관련 협회, 학계, 연구기관(산업연·대외경제정책연·산업기술평가원), 로펌, 관계부처 참석

위기대응네트워크는 '24년 7월 공식 출범한 IPEF 공급망 협정 이행기구로서 세계 최초의 다자간 공급망 위기 대응 협력체이다. 지난해 초대 의장국으로 선출된 우리나라는 금년에 두 차례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공급망 교란 대비 모의훈련 실시, ▲공급망 정책 및 경험 공유 등을 통해 공조 체계를 정비하고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금번 워킹그룹 회의에서는 2025년도 상세 운영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특히, 모의훈련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헬스케어, 광물 분야 등에서 훈련이 필요한 공급망 위기 취약 품목을 선별*하고, 훈련 방식 및 시나리오 개발 등에 대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청취하였다.

* '24.9월 실시된 첫 모의훈련은 화학물질 공급망 교란 상황에서의 공조체계 점검

금일 회의를 주재한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자국 우선주의 강화, 공급망 블록화 등으로 공급망 교란 위기가 높아진 이 때, 위기 상황에서 IPEF 회원국간에 상호 지원할 수 있는 강력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인태 지역 공급망 회복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당부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워킹그룹 전문가들과 긴밀히 소통해가며 위기대응 네트워크 의장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우리나라 및 인태 지역의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신통상전략지원관 공급망위기대응네트워크TF	책임자	팀장	김보연 (044-203-4872)
		담당자	사무관	장재희 (044-203-487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 고 **IPEF 위기대응네트워크 개요**

1. 주요 기능 (IPEF 공급망 협정문 제7조 및 제12조)

□ **공급망 교란 공동대응**을 위해 **긴급지원 조율**, **위기대응 역량 제고**

❶ 공급망 교란 동안 관련 **정보 전파·지원 조율 위한 비상연락채널**

❷ 공급망 교란 **대응 전략 준비 및 모의훈련 실시**

❸ 공급망 교란 관련 **정책 및 절차 평가, 교란 대응 협력 촉진**

2. 의장 역할

□ **정례 및 긴급회의** 운영, **공급망 교란 시 회원국 지원** 조율

○ 위기 발생 시 **피해국 필요한 지원 내역 검토**, 타회원국 **지원 가능 사항 점검*·조율**, 이행 점검 등 **공급망 위기 대응 조정**

* 비즈니스 매칭, 대체운송경로, 과도 가격상승 방지, 수출통관 지원, 매점 억제 등

○ **정례 및 긴급회의 주재 및 운영**, 의제 조율, 회원국 통신문 접수, 회의록 작성, 일정 조율 등 **이행기구 사무국 역할**

[공급망 교란 대응 긴급회의 메카니즘]

당사국 비상회의 요청 ⇨ **긴급회의 개최** (요청 15일내) ⇨ **회원국 지원 조율•이행**

* 장관·정상급 격상 가능

피해당사국 정보 제공
• 교란의 영향 • 교란의 원인 • 예상 지속 기간 • 필요 지원내역

회원국 지원 가능 내용
• 비즈니스 매칭 • 대체 운송경로 • 과도한 가격 상승 방지 노력 • 수출통관 지원 • 매점 억제 등